

건강가사 강꾸람 을느느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4

2021. September | Octob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관동팔경 그 중에 1경,
죽서루

삼척 죽서루는 삼척을 가로지르는 오십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누각이다.
'누'란 사방을 트고 마루를 한층 높여 지은 다락형식의 집을 일컬으며, '죽서'는 누의 동쪽으로 죽장사와 당대 이름난 기생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죽서루'라 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 후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물 제213호로 관동팔경 중 하나이다.
또한, 죽서루 주변에는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읍성성곽로'가 있으니 꼭 방문하길 권장한다. 읍성성곽로는 성내지구의 정취를 살린 테마 보행로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삼척시는 석탄산업 구조조정, 주요관서 이전 등으로 쇠퇴하던 성내동의 재생을 위해 읍성 둘레길을 5가지 테마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우,치,다 (깨끗한 **우리**동네 **치**우고 제대로 버린**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을 삼척시와 함께 '깨우치다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친환경 여행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공 삼척시청

건강한 오늘

4 닥터 톡톡

명절에 특히 유의해야 할
위식도 역류질환

8 HIRA 빅데이터

한국인의 소화기를 위협하는
대장암

10 위로의 약방

증상별로 다른
소화제 복용법

12 건강 인문학

오늘의 장기이식을 생각하다

14 평가정보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당신 덕분에

18 빛나는 그대

화상을 입었을 땐 화상전문병원
푸른병원 김상규 병원장

22 반가운 당신

한국인은 밥심, 위장 건강 뒷받침돼야

26 함께의 가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MZ세대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향수공방 제니헤나

30 열정 36.5℃

보건의료전문가의 산실
인재경영실

함께하는 내일

34 마음 연구소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인생을 향해하는 법

36 #나누는 건강

한절기에도 내 피부는 소중한니까,
'건조한 계절, 나만의 피부관리법'은?

38 HIRA NEWS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외

40 독자마당



정책 이야기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

- 02 ① 유방암(1~7차)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 05 ② 위암(1~5차)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 08 ③ 2021년(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09 ④ 2021년(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11 ⑤ 2022년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안내
- 12 ⑥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내
- 14 ⑦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
- 16 ⑧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안내
- 17 ⑨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안내
- 18 ⑩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4

2021. September | October

발행일	2021년 9월 6일 통권 제 184호
발행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발행인	김선민
편집인	김한정
기획·디자인·사진	(주)이팝
인쇄	태백종합인쇄공사
고객센터	1644-2000
ISSN	2384-40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서도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www.hirasabo.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ok_hir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okyeshira



웹진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카카오톡 채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책자 오른쪽 상단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음성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제호는 말싸미815 서체를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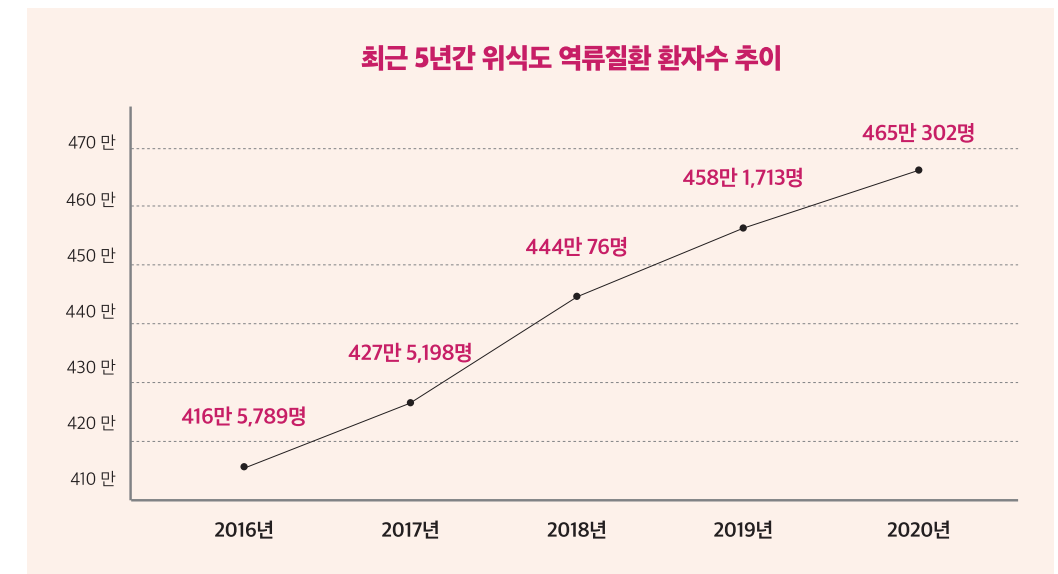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9·10월호와 관련된 모든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명절에 특히 유의해야 할 위식도 역류질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 가슴 쓰림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것을 위식도 역류질환이라고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서구인에서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인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주로 잦은 과식과 음주로 인해 발생하고, 악화된다. 특히 평소보다 과식과 음주의 가능성이 높은 명절, 이 질환의 주의가 요구된다.



글. 강남세브란스병원 박효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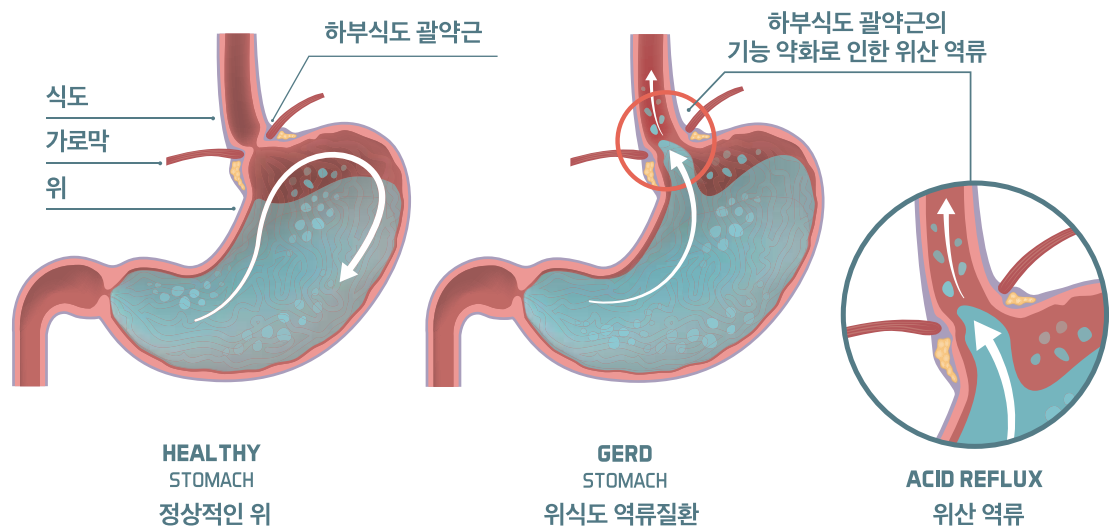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위식도 역류질환의 추이는 위와 같다. 2020년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수는 465만 302명으로, 지난 2016년 대비 11.6%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었다.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위식도 역류질환은 국내에서 매우 찾아보기 힘든 질환에 속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인 10명 중 1명 꼴로 이 질환을 갖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소화기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위식도 역류질환의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과 적기의 치료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가슴 쓰림과 쓴물(신물)이 목으로 자주 올라오는 산 역류 증상이 있다. 식도로 넘어온 위산과 위 속 내용물이 식도점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슴 통증과 목의 이물감, 그리고 기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후두염이나 천식,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



만성기침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을 즉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인해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협심증으로 오인해 심장내과를 방문했다가 심장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뒤늦게 소화기내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이 심해지면 식도궤양이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료와 재발이 반복되면서 식도암의 전구 병변인 바렛 식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식도 협착이 초래돼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 위식도 역류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 식도의 정상적인 세포 모양이 바뀌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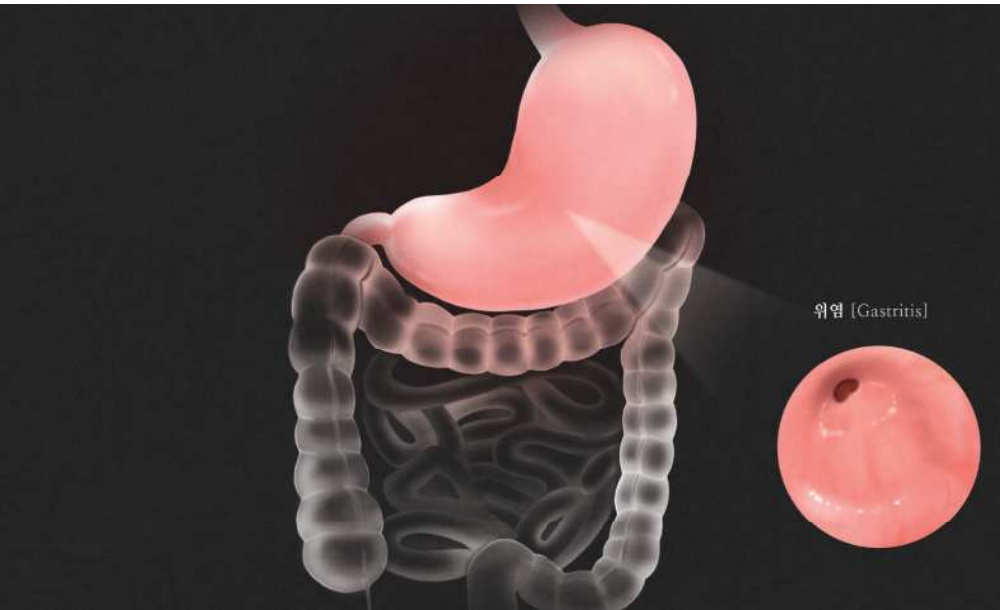
비만과 과식이 증상을 악화시켜

비만이나 과식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비만 체형은 평소 복압이 상승돼 있어 위산이 식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 비만이면 과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다한 음식물로 인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조임 근육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 경우 위가 식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탈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역류가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평소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복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하부식도 조임근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식도운동기능이 저하됐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악화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돼 내원한 환자는 이 같은 증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암과 식도암 등 질환과의 감별 등 보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전형적인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으면 약물 투여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초기 치료로 아침 식전 산 분비 억제제를 4주에서 8주간 사용하며, 유지요법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하도록 한다. 질환자 본인의 생활습관 개선도 무척 중요하다. 평소 기름진 식단과 습관적인 야식은 역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특히 취침 전 음주와 탄산, 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하부 식도



조임 근육을 느슨하게 해 위산의 역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간혹 음주 후 술을 빨리 깨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구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피해야 할 습관이다. 식도와 위 사이 점막에 출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초콜릿 등 카페인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 고칼로리의 음식을 줄여야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에서 비롯한 '생활 습관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산 분비

억제제 등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식이조절, 절주, 금연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 질 때 증상 완화는 물론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Tip. 위식도 역류질환에 이것만은 꼭 피해야



기름진 음식

- 기름에 튀겼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식도에 자극을 주고 비만을 초래하므로 주의



음주

- 잦은 음주, 특히 자기 전 음주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원인 음주 후 토하는 습관도 금물



과식

- 소화액이 많이 분비되고 위의 압력이 높아지는 과식은 위식도 역류질환의 주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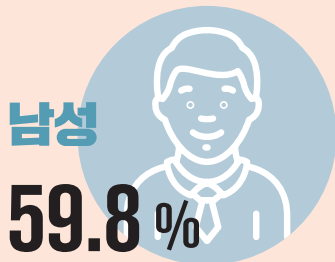
한국인의 소화기를 위협하는 대장암

위장관 질환은 국내에서 발병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이며, 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암발생을 각각 1위와 4위로 전체 암발생의 23.4%를 차지한다. (출처: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통해 가장 최근 대장암 발병 현황을 통계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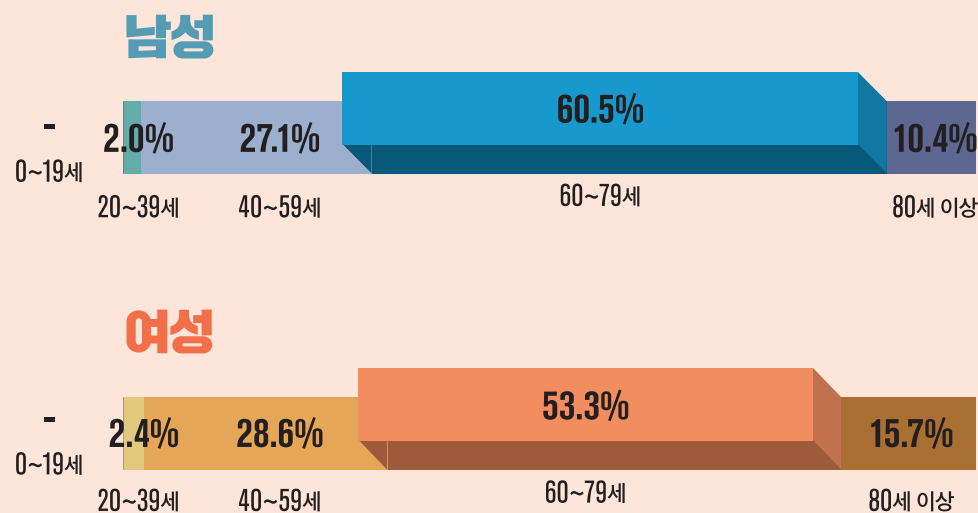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1 2020년 전체 환자 수

15만 9,4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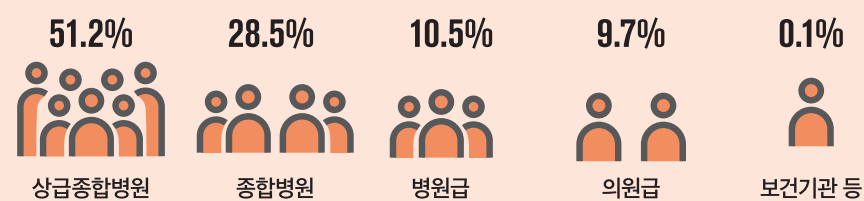


2 성·연령별 환자 비율



여성
40.2%

3 요양기관종별 환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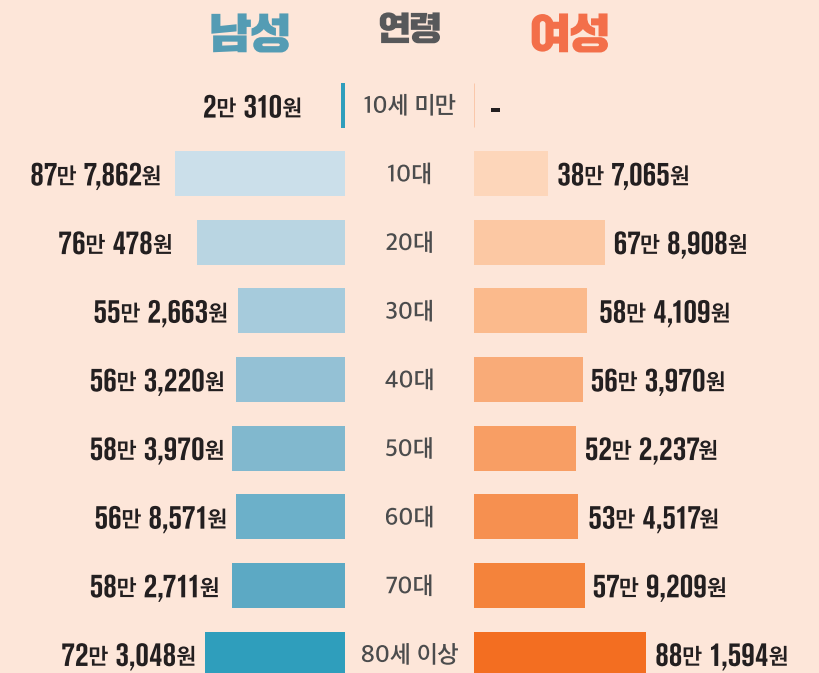
4 동반상병 환자비율

상위 5순위



5 2020년 총 진료비용(청구건당 평균 진료비용) 및 성·연령별 청구건당 평균 진료비용

8,019억 411만 6,000원 (59만 825원)



6 요양기관종별 청구건당 평균 진료비용



기타 유의사항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험자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제외)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령별 환자는 진료비 명세서에 기재된 수진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이며, 진료시점에 따라 중복 집계 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자료와 문의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s://opendata.hira.or.kr>) 과 '보건의료빅데이터시각화시스템' (https://opendata_visual.hi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별로 다른 소화제 복용법



글.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정욱 교수

소화기계 약물의 남용

소화불량이 있을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이다. 복통, 더부룩함, 속 쓰림,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보통 증상의 원인을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선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소화제를 포함한 소화기계 약물과 다른 약물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개인의 습관으로 인해서 남용하는 경우도 많다. 소화불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능성 소화불량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노인에서는 소화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또 다른 증상이나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표적 소화기계 약물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화제라고 하는 약물에는 소화효소제, 위장관 운동 조절제, 제산제, 가스제거제 등이 있다. 이는 대개 복합제제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소화효소제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생산하거나 추출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소화시키는 효소이다. 주로 지방분해에 효과가 좋아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될 때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 만성 췌장염, 췌장 절제술 등으로 췌장 기능 부전이 발생한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소화효소를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복용하는 경우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효소제는 주로 식후에 복용한다.

소화제로 사용되는 또 다른 약물 중 하나인 위장관 운동 조절제가 있다. 대표적인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는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와 5-HT₄ 수용체 효능제가 있다. 위장관 운동 조절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인한 복부팽만감, 불쾌감, 복통, 식욕부진, 속 쓰림, 메스꺼움, 구토 등에 효과적이다.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체한 증상이 있을 때도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위장관 운동 조절제의 종류인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는 장기 복용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억제되어 파킨슨병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노인과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약물 복용 중 근육 경직, 떨림 등 파킨슨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인이 많이 복용하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하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감소시켜 위장의 점막 손상을 감소시키는 약제이다. 주로 속 쓰림과 복통 등 급성 소화기 증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의료분야에서는 이미 100년간 사용한 약제로 일반인에게도 매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제산제는 식사 2시간 이후로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인 제산제 투여가 필요할 때는 식후 3~4시간 후에 복용한다.

야간의 위산분비에 대비하여 취침 전에 복용하기도 한다. 제산제에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그네슘 성분의 제산제는 장기복용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알루미늄 성분의 제산제는 변비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스제거제는 주로 시메

티콘이 사용되고 있다. 가스제거제는 장내 가스의 생성을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장내 가스의 배출을 촉진하여 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복용한다.

일반적으로 소화제는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으로 오인된다. 하지만 오남용 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여러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제 형태의 소화제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소화제 복용 전에 약제의 성분과 기능, 부작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동반질환과 기 복용약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불량 등 증상이 생겼다고 장기간 일반의약품을 복용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장기이식을 생각하다

2021년 오늘, 대한민국에서 장기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4만여 명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장기이식 신청이 더욱 줄어든 가운데, 최근 TV 출연 등으로 장기이식의 중요성과 인식을 환기한 신혜림 장기이식코디네이터를 만나 오늘의 장기이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았다.

정리. 편집실 이미지출처. TVN

장기이식,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은 해 보았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영역입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장기이식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이식대기 중인 환자는 약 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 수는 2020년 12월 기준 연간 2,154명이었고, 하루 약 5.9명 꼴입니다. 이식대기자는 증가하지만 뇌사 기증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증자의 수가 너무 적어 늘어나는 대기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는 어떤가요.

저는 3년차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 현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선배님들에 비하면 경험이 긴 편은 아니지만 한 번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뇌사 추정자나 보호자를 상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게 기증 동의를 해 주셔서 무사히 기증 수술을 마쳤을 때, 그리고 이식받은 수혜자분들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더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당장 오늘도 장기기증을 결정해주신 뇌사자분이 있어 현재 심사 중에 있고, 그 결과 두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증을 결정하신 마음에 슬픔과 무거운 존경의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돼 너무 기쁩니다.

현장 근무자로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어떤가요.

현재 개인적인 장기 거래는 불법이고, 이식에 관한 모든 절차는 국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식을 받거나 결정한 분들이 비용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건강보험에 책정된 비용이 있지만 이는 이식의 대상인 장기에 대한 지불비용은 아니거든요. 또, 혈액형이 다르거나 고령인 경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도 요즘엔 달라졌어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고위험에 속했던 장기이식도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장기이식을 둘러싼 예우 등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 비록 제 경력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이식을 결정한 분에 대한 예우가 갖춰지지 않은 장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병원의 경우에 가족분들과 함께 임종 면회를 하고, 이식 수술 전 수녀님이 배석하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장기이식 수술에도 마취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뇌사인 분이지만 고통을 염려해 마취를 하고, 수술 후 성형외과적 봉합도 진행합니다. 이런 존경과 예우의 과정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이식이 더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코로나19로 장기이식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 지역사회에 더 많이 나가 장기이식 관련 홍보나 교육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요. 근무를 하다 보면 병원에 와서 “여기에서 장기이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도와드리거나 궁금하신 점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사실 장기이식에 대해 고민이나 결정을 하셨다고 해도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 떠도는 장기이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부정적인 인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장기이식을 고민하게 되기까지도 너무 어려운 과정인데,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뜻을 접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통해 장기이식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비록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었지만 김수환 추기경 선종일인 2월 16일을 ‘장기이식의 날’로 지정해 내원객들에게나마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간으로 삼으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기이식 사례가 있나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례가 고령의 고려인 환자의 간 이식 수술이에요. 외국인인데다가 연세가 많으셨는데 간 부전이 너무 심해 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몇 년 간 건강보험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 제가 환자의 조카분을 모시고 주민센터에 갔었어요. 코노스* 마감인 6시 전에 등록을 해야



하니 마음이 급했죠. 다행히 5시 50분에 등록을 마쳤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정말 기적 같이 다음 날 간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니 기증을 결정하신 분도 워낙 고령이시라 앞 순위의 대기자들이 이식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 간의 상태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기회라 그 병원 담당자와 끌어안고 기뻐했던 생각이 나요. 그 이후로 저도 '장기이식은 나이로 판단할 수 없구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경험이 생겼고요.

* 코노스(KONOS):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최근 방송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죠.

경력도 많지 않은 제가 많은 관심을 받게 돼 쑥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잘 설명하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일을 할 때 공감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증자의 유가족이나 보호자,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을 대할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공감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느껴요. 장기이식이라는 것은, 이식을 받는 분에게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기증을 결정한 분에게는 또 가장 의미있는 결정으로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되겠죠. 마음이 뜨겁고 벅찬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지 말자, 한 마디 한 마디를 침착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자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이식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Mental Health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2019년(1차) 결과 및 2021년(2차) 계획

평가배경 및 목적

평가배경

-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9년 1차 평가 시작
 -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의학과(입원)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2주기 2차 평가* 진행 중
 - * 평가 대상기간: 2021년 1~6월 입원진료분(6개월)

평가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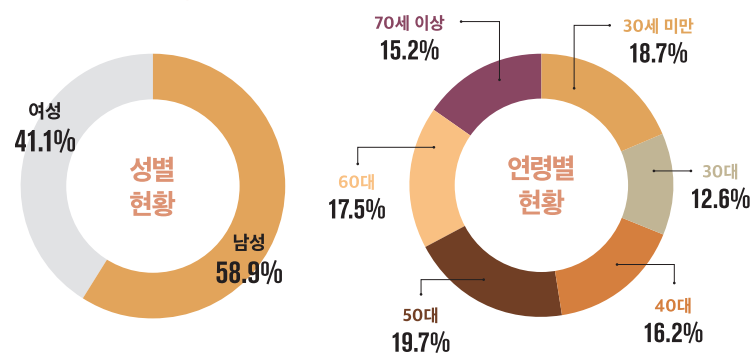
-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2019년(1차)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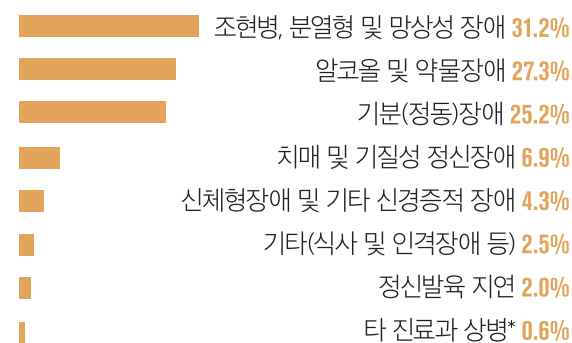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9년 8월~2020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 대상기간 중 개업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평가대상 현황



상병별 현황



* 타 진료과 최초입원 후 정신건강의학과로 전과한 건

평가지표별 결과

결과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항목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정신질환자의 입원시 환자 안전 및 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능에 대한 선별평가 필요

62.4%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 및 후속치료를 위하여 퇴원 전 기능 및 증상 호전에 대한 재평가 필요

60.3%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경과 확인 및 복용하는 항정신성 약물 관련 이상반응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 평가 수행 필요

35.6%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정신요법*은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

* 집단정신치료, 가족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



4.8회/주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개인정신치료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



4.6회/주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낮병동 또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아야 함

66.7%

결과값이 낮을수록 우수한 항목

재원환자 입원일수-중앙값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의 누적 입원일수 최소값과 최대값의 정중앙에 위치한 값



135일

퇴원환자 입원일수-중앙값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들의 누적 입원일수 최소값과 최대값의 정중앙에 위치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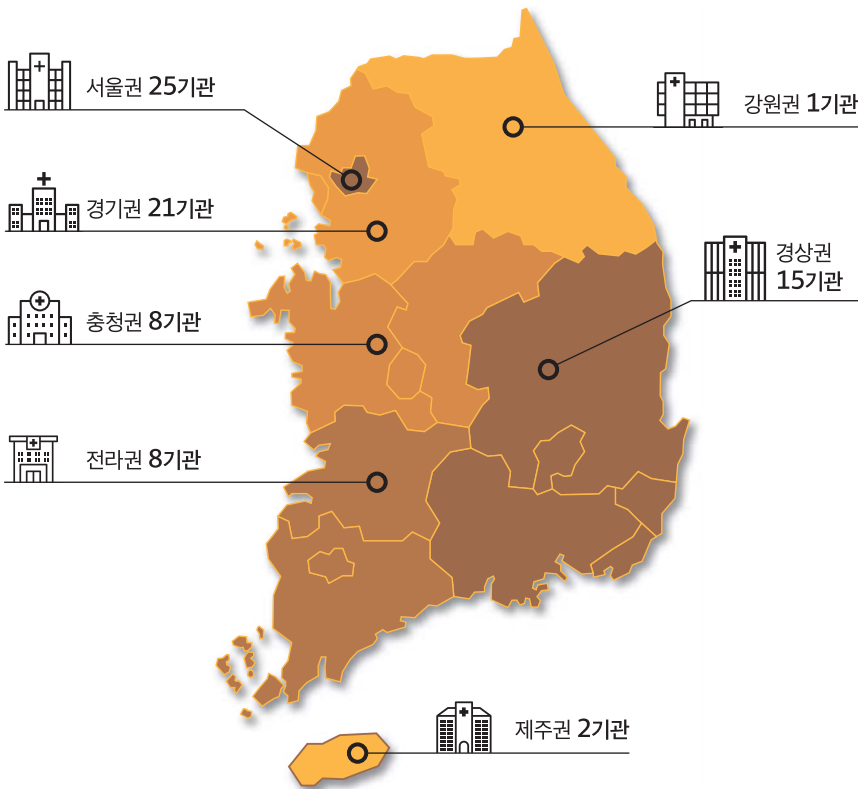


28일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였으며, 진료실적이 적거나 조사자료 미제출로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은 ‘등급제외’로 공개
- 1등급 기관은 총 80기관으로, 전국 권역별로 분포



2021년(2차) 평가계획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1년 10월~2022년 3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 대상기간 중 개업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평가기준

• **평가지표**: 총 10개(평가지표 8개, 모니터링지표 2개)

구 분	지 표 명	비 고
평가지표	과 정 (5)	입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유지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¹⁾	보완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 ²⁾	유지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유지
결과 (3)	재원환자 입원일수_중앙값	유지
	퇴원환자 입원일수_중앙값	유지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²⁾	보완
모니터링 지표	결과 (2)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퇴원 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²⁾	보완

주 1) 「이상 불수의 운동 척도 AIMS」 산출대상 평가 범주 추가
2)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와 기준 통일

평가방법

• 지표값 산출

평가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활용하여, 각 평가지표의 기준에 따라 기관별 지표값 산출

• 종합점수 산출

평가지표 8개(모니터링지표 제외) 지표값에 지표별 표준화 점수 및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평가등급 부여

산출된 종합점수 구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 부여
※ 지표별 표준화 점수, 가중치 및 평가등급 부여 기준 등은 향후 전문가 심의를 통해 결정

평가결과 활용

- 대국민 정신의료기관 선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평가결과 공개
-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를 제공하며,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활동 실시

우리 동네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1등급 병원은 어디 있나요?

- ‘병원평가정보’는 수술, 질병, 약제 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 병원의 정신건강 입원영역 관련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년(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계획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e-평가시스템(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

화상을 입었을 땐 화상전문병원

푸른병원 김상규 병원장

살아가며 한 번쯤은 뜨거운 데 손을 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통 가까운 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증화상이 많지만, 중증화상이나 초중증화상을 입는 환자들도 있다. 화상의 넓이나 깊이에 따라 치료법은 더욱더 까다롭고, 때에 따라 생명까지 위협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화상치료 전문병원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글 정리희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대구경북 유일 화상전문병원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정된 4기 1차년도 전문병원 중 화상 분야는 단 다섯 곳뿐이다. 서울 2곳, 부산과 충북에 각각 1곳,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푸른병원이 유일하다.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급히 향할 때,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따로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이가 알고 있는 곳이 바로 푸른병원이다. 화상을 입은 소아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전국 각지에서 대구까지 찾아오기도 한다.

2021년 8월 기준 147병상을 운영 중인 푸른병원의 역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과 전문의인 김상규 원장이 15병상 규모의 작은 의원으로 시작했던 곳이 20년 세월을 거치며, 대구에서 ‘화상’ 하면 먼저 떠오르는 전문병원으로 성장했다. 비록 작은 의원이었지만 환자가 몰렸다. 대학병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화상환자들이 김상규 원장을 찾아 몰려왔던 것 그 과정에서 김상규 원장은 ‘화상 치료와 재건 치료를 함께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환자가 늘어날수록 의료환경에 대한 아쉬움도 커졌다. 외과와 내과, 마취과 등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되어야 중증화상환자를 살릴 수 있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렇게 2006년 대구 대명동에 70병상을 갖춘 푸른병원을 열었고, 2013년 대구 태평로로 건물을 확장 이전해 현재의 규모를 갖추었다.

20년 전, 김상규 원장이 화상치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분야는 불모지에 가까웠다.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던 과거에는 화상을 입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상치료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화상은 대형병원보다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전국 단위에서 봐도 화상전문병원으로서 푸른병원의 존재감은 크다. 2011년 전문병원제도 도입 이후 4기 연속 지정되었으며, 경증과 중증, 초중증화상환자를 아우르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20년 동안 쌓아왔다. 음압병실, 실리온침대, 격리병실, 에크모, 고투과성인공신장기, 고압산소치료기, 심폐용 혈액펌프, 연성기관지경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고가 시설과 장비를 탄탄하게 갖추었다.

“중증화상환자를 살리는 일은 저 혼자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파트별 의료진과 간호인력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의원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5년을 쏟았죠” 김상규 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푸른병원의 화상치료팀은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화상외과 전문의 4명과 성형외과 전문의 등 화상 의료진 2명,



내과, 정형외과 등 중증화상치료 시 협진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의 4명과 소아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성인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화상전문간호사와 물리치료팀, 피부재활팀 등이 참여해 화상치료에 임하고 있다.

오직 화상치료를 향한 사명감으로

푸른병원이 규모를 키우며 성장한 힘은 화상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까웠다. 여타 질환과 비교해 진료 범위가 무척 넓은 화상은 개개인의 피부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고 치료 중에도 빈번하게 변수가 발생한다. 대다수 경증화상환자는 전문병원의 문턱을 넘지 않고 대부분 일반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전체 화상환자의 1%에 해당하는 중증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반드시 전문병원을 찾아야 한다. 화상의 원인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한 것. 조금 전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갑작스러운 화상으로 인해 생사를 오갈 수 있다.

화상 입은 범위를 뜻하는 체표면적이 40% 이상, 3도 화상의 범위가 30%를 넘으면 초중증화상환자에 해당하는데, 화상범위가 넓으면 사망 확률도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화상

“
그렇기에 김상규 원장은
화상치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Mini Interview

환자 이희수 님(가명)

육십 평생 살면서 제가 화상을 입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고는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전기화재로 상반신은 물론 얼굴까지 화상을 크게 입고 119에 실려 푸른병원으로 왔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병원의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이만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화상치료 수준이 기술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마음으로 치료에 임한 원장님과 의료진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호자 김미진 님(가명)

아기를 보행기에 태우고 설거지를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차를 끓이고 있던 포트기가 엎어졌더라고요. 119로 병원에 왔을 때 김상규 원장님과 의료진이 한마음으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두 차례 수술을 받고 2주가 지나서야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 후 매일 두 번씩 드레싱을 하면서 화상 면적을 줄이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을 무뚝뚝하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원장님은 쉬는 날에도 우리 아이를 보러 일부러 나오실 만큼 다정한 분이십니다.



범위가 50%면, 사망확률도 50% 이상이다. 초중증화상환자는 사고 후 초기 치료 가능 여부에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사망확률의 부담을 안고 치료에 임해야 할 때가 많지만, 대형사고나 화재 속에서 병원까지 이송되어 온 환자를 살릴 곳은 '우리 병원뿐'이라는 사명감으로 화상치료에 집중한다. 2015년에는 체표면적 90% 이상 화상을 입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초중증화상치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꾸준한 재건치료까지 병행해야 하는 환자과 의료진의 기나긴 여정이다. 화상치료에서의 재건은 미용이 아닌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 그렇기에 김상규 원장은 화상치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 푸른병원은 2022년을 목표로 제주분원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화상치료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전국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푸른병원. 화상치료를 향한 사명감으로, 오늘도 김상규 원장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한국인은 밥심, 위장 건강 뒷받침돼야

서현진 아나운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황희진 교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본 취재의 촬영은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질환, 바로 위장 질환이다.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기름진 고칼로리의 서구화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서 위장 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음이나 폭식이 잦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는 명절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 위장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와 서현진 아나운서가 위장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영상. 김지혜



서현진
아나운서



Stomach
Health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황희진 교수

한국인의 위장 질환

❶ **서현진 아나운서**: 곧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등 위장 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집니다. 저 또한 명절에 마음 놓고 먹고 마신 끝에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황희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인의 위장 질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❷ **황희진 교수**: 안녕하세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황희진입니다.

❸ **서현진 아나운서**: 교수님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❹ **황희진 교수**: 제가 교수로 승진했을 때 멘토로 모시던 선생님께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추천해주신 곳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와 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최고위자과정이 올해로 18기를 맞고 있는데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하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 2007년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 14년 간 보건의료계,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670여 명이 참여했다(현재 제18기 운영 중).
 - 심사평가원 역할 및 주요 업무,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제도 등 14차수로 구성되며, 45명 내외의 인원을 선정하고 있다.
- ※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국민참여 > 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



❶ **서현진 아나운서:** 교수님도 먹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먹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먹방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이 먹방을 얼마나 좋아하고 많이 보는지, 해외에서도 이 같은 콘텐츠를 한국어 발음 ‘먹방’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저도 ‘먹방’ 정말 좋아하고 자주 보는데요.

㉠ **황희진 교수:**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인, 정말 먹는 것 좋아하고 잘 먹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위장 건강에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이 체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접촉하는 장기가 위장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위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각종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 바로 위장에 생기는 위염입니다. 위염이 심하게 진행되면 궤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위 궤양과 헬리코박터균이 만나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 가능한 위암

❶ **서현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위암이 정말 위험한 병이죠.

㉠ **황희진 교수:** 위장에 생기는 여러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아마 위암 아닐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대비 위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술과 담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지 한참 되었어요. 저도 회식을 즐기지만 한국에서 딱 한 잔만 하고 마치는 모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술 모임은 2회 중 1회는 꼭 거르시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술자리의 담배도 떼어놓기 힘든 문제인데요.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암과의 연관성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흡연은 신선한

위장을 담배 연기에 훈제시키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흡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위에 강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❶ **서현진 아나운서:** 오늘 한국인이 주목해야 할 질병, 위장 질환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위장 질환의 위험성이나 경향성에 대해 말씀 듣고 보니 개인이나 의료인의 역할만큼 사회적인 분위기도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습관을 바꾸고 의료체계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희진 교수:** 정말로 그렇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위장 질환과 같이 우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질환의 의료기관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시작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가 그것인데요.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 관점의 지역 우수 병·의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다,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속이 쓰리다 등의 불편함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주변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❶ **서현진 아나운서:** 오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황희진 교수:** 저야말로 더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2020년 8월 개시)

동네 병·의원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및 의료기관 선택 정보의 접근성·인지도 개선을 위해,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국민 관점의 지역 우수 병·의원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양호 기관, 난임시술·응급의료·재활 전문병원 지정 기관



“

음식물이 체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접촉하는 장기가 위장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위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각종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정윤채 인턴과 조세민 인턴은 원주에서의 생활이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다. 이들에게는 원주에서의 시간,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하루하루가 모두 새롭고 뜻깊다. 이번 호 함께의 가치는 원주를 대표하는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에서 이들이 보낸 특별한 시간을 담았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도 출연한, 원주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에서 꽤 긴 시간 자리를 잡고 있는 향수공방 '제니헤나'는 나만의 향을 배합해 향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만의 향수를 스스로에게 선물한 두 인턴의 특별한 현장을 함께 했다.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영상. 김지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동영상에 재생됩니다.

"오늘 클래스는 생각보다
실용적이고 재미도 있었어요.
평소 향수를 잘 쓰지 않는데 오늘
만든 향수는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정윤채 인턴

"원주는 자연이 많은데도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예요. 아직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돼요."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조세민 인턴

※ 본 체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 자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본 취재의 촬영은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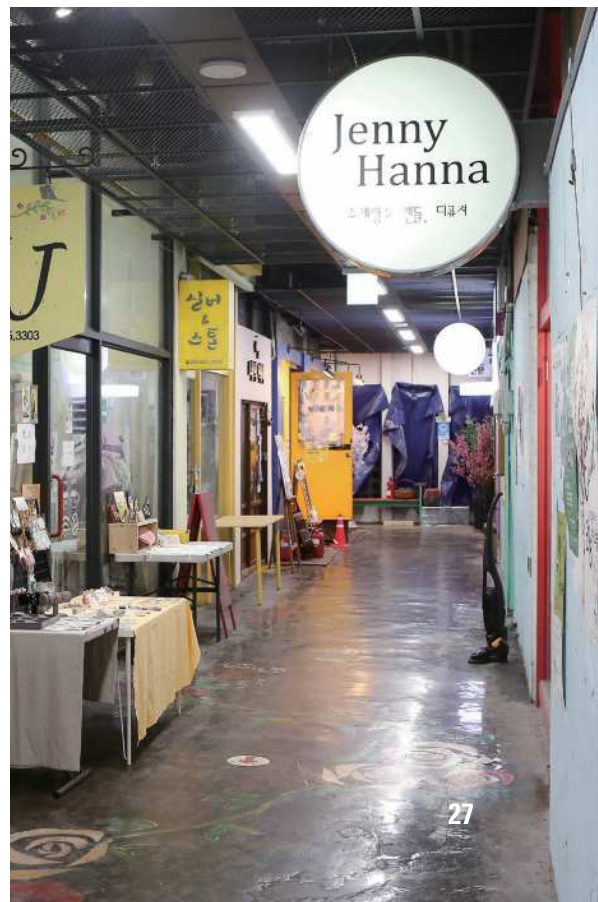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을 방문한 두 인턴

심사평가원 하반기 인턴들이 근무를 시작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집을 떠나 원주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날에 적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코로나19도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인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정윤채, 조세민 인턴은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이하 '미로시장')에서의 '향수 만들기' 원데이클래스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조세민 인턴이 제안했고, 정윤채 인턴이 흔쾌히 이에 응했다. 여러가지 향을 배합해 나만의 향수를 만든다는 것도 흥미로웠지만,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미로시장 안 오래된 향수공방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저는 평소 향수는 잘 쓰지 않고 핸드크림 정도만 바르는 편인데 그래도 (원데이클래스를)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조세민 인턴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평소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은 편이라, 이 클래스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해보니깐 제가 고른 향도 훨씬 마음에 들고 실제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향수가 된 것 같아요. 참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MZ세대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향수공방 제니헤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토박이인 정윤채 인턴은 평소에도 조세민 인턴과 친하게 지내며 조세민 인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향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뜻깊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참여한 원데이클래스. 이번 클래스는 평소 손재주가 있는 정윤채 인턴에게 즐거운 시간이 됐다. 특히 향을 첨가한 석고를 굳힌 후 채색하는 과정에서 정윤채 인턴의 남다른 솜씨가 잘 드러났다.

울산에서 온 조세민 인턴은 원주의 매력에 흠뻑 빠진 케이스이다. 도시의 편리함을 고스란히 가졌으면서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원주는 그에게 살기 좋은 도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남겼다. 특히 향수공방이 자리한 미로시장은 원주만의 특별한 느낌과 생동감을 가지고 있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원주는 도로도 넓고 구석구석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클래스에 참여하기까지 기대가 많았어요. 끝나면 여기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미로시장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클래스가 진행되는 동안 공방 안을 흥미롭게 둘러보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렀던 이들은, 취재용으로 촬영한 사진에도 가감없이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엉악없는 요즘 MZ세대의 모습이었다.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미로시장

제니헤나의 원데이클래스는 20가지의 향 중에 내가 좋아하는 향을 골라 배합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특별히 석고방향제 만들기도 함께 진행했다. 석고를 반죽해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첨가하고, 굳힌 석고를 채색해 방향제를 완성한다. 자신이 쓰기에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원주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미로시장은 1층의 재래시장과 2층의 상업공간이 묘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과거 빈 공간이었던 재래시장 2층에 청년사업가들이 다수 모여들어 각자의 개성을 살린 공방이나 가게를 열었고 지금의 미로시장을 만들어냈다. 제니헤나 역시 미로시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던 시기에 향수공방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 제니헤나를 운영하고 있는 임슬기 대표는 언니로부터 미로시장점을 물려받았다. 언니는 지난 2020년 원주 혁신도시에 두 번째 지점의 문을 열었다. 미로시장 제니헤나는 30분부터 2시간까지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지 않고, 체험이 끝나면 자신이 만든 향수나 방향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특히 미로시장이 공중파를 통해 입소문을 탄 이후에는, 미로시장을 방문한 외지인들이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었다. 이를 위해 제니헤나는 사전 예약 없이도 무난히 참여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에는 매출이 반토막 날 정도로 힘들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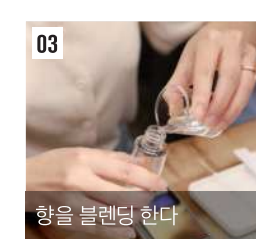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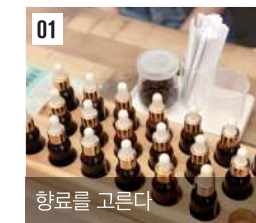
특히 미로시장은 지난 2019년 화재 사건 직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 컸지만 지역사회와 상인회의 노력으로 이를 타개해나가고 있다.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다시 주말에 방문하는 분들이 조금 늘었어요. 저 역시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꼭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제니헤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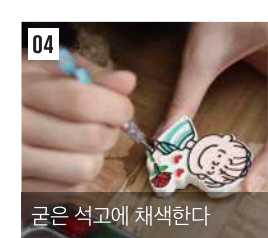
미로시장 역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은 매장들이 적지 않다. 특히 미로시장은 지난 2019년 화재 사건 직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 컸지만 지역사회와 상인회의 노력으로 이를 타개해나가고 있다.

이제 막 원주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인턴들에게 미로시장에서의 시간이 더 특별하게 장식됐기를 기대한다.

향수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제니헤나 공방(미로시장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제니헤나는 향수, 방향제 등 방향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공방이다.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조합해 방향 제품을 제작하는 원데이 클래스도 참여할 수 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길6 다동 2층

체험문의 010-2114-4025



보건의료전문가의 산실 인재경영실

세계 어느 조직이라도 '인재'만큼 중요한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다. 조직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역할. 인재경영실은 이같이 인재를 발굴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로 육성하는 부서다. 또한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언제나 직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재경영실을 만나 보자.

글. 이현아 사진. 헬리오포토 스튜디오

조직의 인재상을 수립하고 이끄는 인재경영실

인재경영실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다운 조직으로 만드는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조직의 핵심 가치인 '인재'가 있다. 인재경영실은 직원을 보건의료 전문가로 육성하는 '인재개발부', 직원 채용부터 배치와 승진 등을 지원하는 '인사부',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제공 및 노동조합과 소통하는 '노사복지부' 등 3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이 심사평가원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매 순간 함께 하는 인재경영실은 언제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인재가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과연 인재경영실은 심사평가원의 인재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 향후 미래 선도를 위한 인재상을 정립한 바 있다. △국민을 위한 인재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공정함으로 신뢰받는 인재 △열린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등 4가지 요소가 새로운 인재상에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인재경영실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평인"이라는 말로 인재경영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설명한다. 인재경영실은 조직의 지향점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발굴할뿐 아니라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부서이기도 하다. 인재경영실은





인재개발부 방태환 과장

인사부 김수연 주임

노사복지부 김승혁 과장

개인별 상시학습체계를 갖추고 교육의 성과가 인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의 직원들은 실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승진이나 직무 배치에 반영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직원의 인사관리와 인사상담 등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는 인재경영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워라벨’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PC-OFF’제, ‘가정의 날’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급여 지급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노동조합과 협력·소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올해는 혁신의 노력들이 정착되는 해”

인재경영실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인사·교육제도 개편 노력으로 조직의 제도 혁신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지난 2020년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직 전문성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는 공공기관 중에서 독보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최원희 실장은 “올해는 지금까지의 혁신 노력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지는 한 해”라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무 전문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조직경쟁력과 지속성장이 직원의 직무 전문성에 근거하기



“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며 업무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언제나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

Mini Interview
인재경영실 최원희 실장

Q1. 인재경영실은 어떤 부서이고, 올해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재경영실은 우리 원의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하며, 직원들이 전문역량을 발휘하여 일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와 행복한 일터 조성이 중요합니다.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작년년부터 전문가트랙 운영과 생애주기별 직무교육 설계 및 역량기반 승진제도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정착되어 조직의 직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운영직의 직위·호칭, 승진, 평가·보상체계 등 인사제도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운영직 직원들이 우리 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2. 부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재경영실은 안으로는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며 최선의 인사·교육·복리후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직원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생각과 요구들을 접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의견과 고충에 친절하게 답하며, 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인재경영실 직원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며 업무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언제나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2021 신규직원 교육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현재 비대면으로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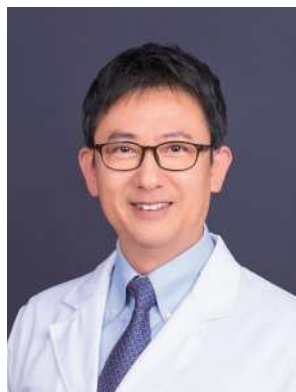


사내 직원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현장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인생을 향해하는 법



글. 박순석 수의사
(탐스메디컬동물병원장, SBS 'TV동물농장' 자문위원)

2021년 7월19일,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식 수준이 독일, 프랑스와 견줄만하다. 최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듯하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경계도 무색해지고 있다. 지금 당장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과거 반려인이었거나 예비 반려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반려동물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향해하는 법을 소개한다.

인간과 개의 숙명적인 만남

개의 기원은 3만년 전, '빙하기'에서 비롯된다. 개가 인간을 신뢰하는 본능은 2만여 년에 걸쳐 쌓여 왔다. 회색늑대 중 일부가 인간이 남긴 음식물로 연명하며 개의 조상으로 진화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 Juliane Kaminski의 연구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 개의 눈썹 근육이 극적으로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눈썹 주변의 근육들이 발달한 영향으로 개의 눈은 늑대에 비해 크고 둥글게 보인다. 흰자위가 더 많이 노출되어 사람의 눈을 닮아가는 듯하다. 일부는 눈두덩이를 들어 올리며 사람처럼 눈으로 감정을 전달하기도 한다. 인간의 눈을 바라보며 주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던 간절함이 해부학적인 진화로 발전한 셈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있다. 고양이의 기원은 약 1만년 전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대 야생고양이로 추정하며, 약 5000년 전 이집트인에 의해 길러지기 시작했다. 2014년 워싱턴대 의과대학에서 7년에 걸쳐 고양이 반려화와 관련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집고양이와 야생고양이의 유전자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이는 여전히 반려화의 중간 단계(semi domesticated)라고 평가한다. 고양이 반려인을 '집사'라 호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물을 '내 아이'처럼 대하는 이유

'Pet Humanization', 동물을 의인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인간은 반려동물을 '내 아이'처럼 여기며 보살핀다. 개를

유치원에 보내고 생일파티를 해주거나, 고양이를 위해 방을 꾸며주고 좋아하는 츄르를 선물하기도 한다. 행복해하는 개와 고양이를 지켜보며 반려인은 행복해 한다. 동물이 반려인의 배려에 작게라도 화답하면 반려인은 한없이 감동받는다. 동물을 돌보는 모든 번거로움이 일순간에 사라진다. 부모가 '내 아이'를 보살피며 감동하고 정서적 위안을 얻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문제도 발생했다. 인간이 본인의 음식을 나눠 주거나, 임의로 해열제를 먹여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기 방식으로 교육시켜 발생하는 곤란한 상황도 있다. 동물의 본성이 배려되지 않은 교육은 강압이다. 개와 고양이는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공격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동물과 가족 모두에게 불행이 시작되며 동물을 유기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인간이 자기 편의대로 동물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다. 동물권이 신장된 지금은 동물학대로 본다. 이는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생명에게 갑질하는 비열한 행동임을 주의하자.

동물 건강 복지가 행복의 시작이다

반려동물 입양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검진이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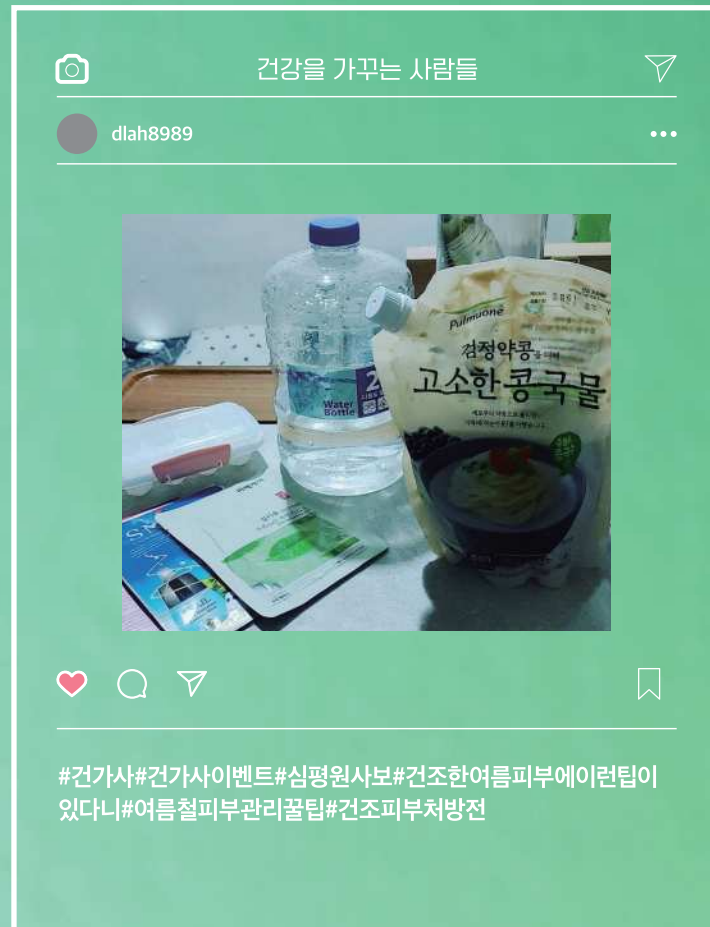
생체 칩을 삽입하면 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의적인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목적도 중요하다. 반려인의 의무다. 전문가로서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동물진료비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공익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질병예방 목적의 검진, 중성화수술 등에 대하여 국가가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보험화하자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반려인들이 동물의 건강 복지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도 그에 화답하기 마련이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동물들은 대부분 심신의 병이 깊다. 평생 보살핌이 필요하기도 하다.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면, 동물이 인간을 신뢰할 때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다정하게 내미는 손길도 오해받기 쉽다. 이미 사람의 손을 학대의 시작으로 인식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동물은 심신이 안정될 때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동물이 반려인을 탐색하고 충분히 안심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유기동물은 반려인을 신뢰하는 순간부터 반려인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높았던 만큼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깊었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모든 반려인들이 공감하는, 가장 감동적이고 행복한 순간이다. 반려인은 항시 동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기다려야 한다. 동물이 자신을 충분히 신뢰할 때까지 감내해야 한다. 순수한 영혼을 가진 동물이 나를 신뢰하는 순간 감동과 행복은 봇물처럼 피어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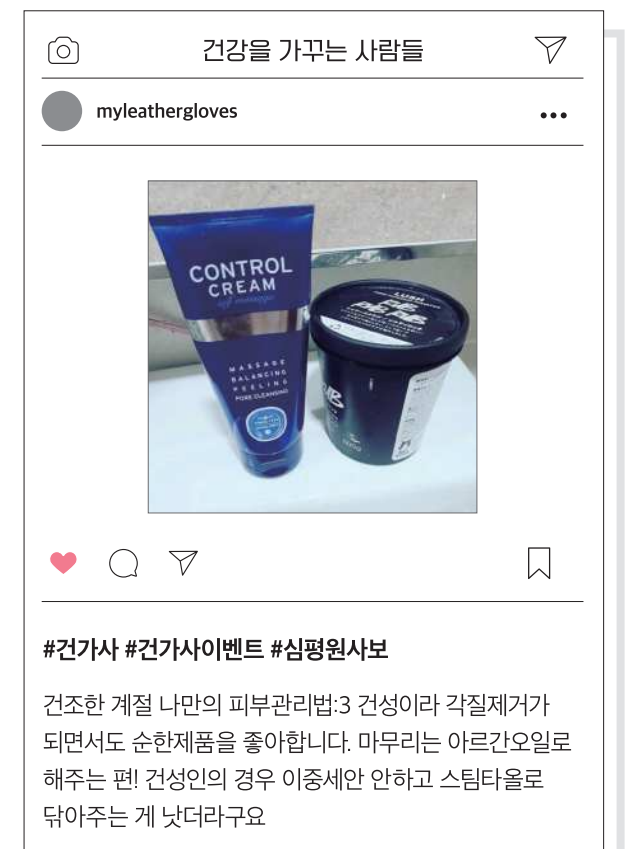


환절기에도 내 피부는 소중한니까, ‘건조한 계절, 나만의 피부관리법’은?

환절기면 언제나 건조하고 푸석해지는 피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구독자들이 소개하는 ‘건조한 계절, 나만의 피부관리법’, 지금 공개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11+12월호 #나누는 건강의 주제는 ‘나만을 위한 건강한 밥상’입니다.
‘수고한 나를 위한 건강한 한상 밥차림 비법’을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을 포함해 1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드립니다.



HIRA NEWS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인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치료제(면역글로불린주사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통상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는 등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해, 의료현장에서 백신 부작용 발생 환자에게 적시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



심사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심사AI 프로젝트 추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및 진료비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심사 AI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착오 청구항목 예측모델 개발, 진료경향 이상감지모델 개발, 포괄 심사대상 선정모형 개발 등 발굴된 8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클러스터 동남권 확대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7월 29일 부산·울산·경남 소재 지역대학,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과 동남권 보건의료빅데이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지역산업 신부가가치 창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및 산학협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신규 유튜브 채널 「히히랄라」 오픈

심사평가원은 건강상식, 질병정보 등 건강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히히랄라」를 오픈했다. ‘헬스story’, ‘건강한 동화’, ‘건강치방전’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업데이트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8월 5일 보건복지부 주최 및 심사평가원-건보공단 공동 주관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개최됐다. 아이디어기획 부문과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비아헬스’팀과 ‘리틀원’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도 도전한다.



고려인 광주진료소에 의약품 후원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8월 18일 광주 최대 다문화 정착지인 고려인 마을에 약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전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후원은 고려인의 의료 소외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덴마크 의약청과 공식적인 교류의 장 개최

심사평가원과 덴마크 의약청은 8월 19일 한국과 덴마크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6년 MOU 체결 후 첫 번째 교류의 장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활용 분야 등 강점과 노하우가 공유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 체결

심사평가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는 8월 20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에게 건강키트 및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투약정보 안내서 등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심사평가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건강가사>를 읽고



장효선 서울 은평구

여름에 좋은 체질에 맞는 한방약재는 정말로 제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약재가 모두에게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닌 체질마다 그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땀 흘리는 여름, 제게 맞춤형인 약재 구하러 지금 출동합니다^^

이영훈 대전 중구

자동차 사고로 입원치료 중에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사고로 생긴 어깨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번 호에는 어깨 회전근개파열이 담겨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신데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을가꾸는사람들 183호 독자엽서 당첨자

장효선(서울 은평구)	조건희(경기 부천시)	이귀숙(부산 해운대구)	황소빈(부산 금정구)	박성목(경기 김포시)
이영훈(대전 중구)	하지우(경기 김포시)	김리아(서울 서대문구)	배명순(인천 남동구)	전호재(경기 의정부시)
송혜경(경남 김해시)	박동호(부산 진구)	도성열(대구 달서구)	강영희(서울 동작구)	이숙현(서울 강북구)
안정희(경기 용인시)	박향숙(경기 오산시)	장문희(광주 남구)	전도현(경기 수원시)	이은지(울산 중구)

축하드립니다!

창간 21주년 퀴즈 &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 당첨자 발표

'에어팟프로' 당첨자

김장섭 010-****-5727 왕운영 010-****-2291 최혜영 010-****-1881 강지영 010-****-3242

* 치킨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당첨자는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 공개되는 두번째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 이벤트 소식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카카오톡 친구추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로 제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 구독취소 / 주소변경

01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https://hirasabo.or.kr> 접속

02

하단의 구독신청 클릭

03

조회된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기 클릭하여 완료

*구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필수 사유)

*발송물이 반송되는 경우 해당 구독신청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으로 최적의 의료문화를 만드는 Global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식지

VOL.184

2021. September | October

- 01 유방암(1~7차)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 02 위암(1~5차)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 03 2021년(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04 2021년(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05 2022년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안내
- 06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내
- 07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
- 08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안내
- 09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안내
- 10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BOOK IN BOOK

의약계 안내

01 유방암(1~7차)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2019년(7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서
QR코드 바로가기

문의: 평가실 평가3부 이슬 대리(033-739-5508)

평가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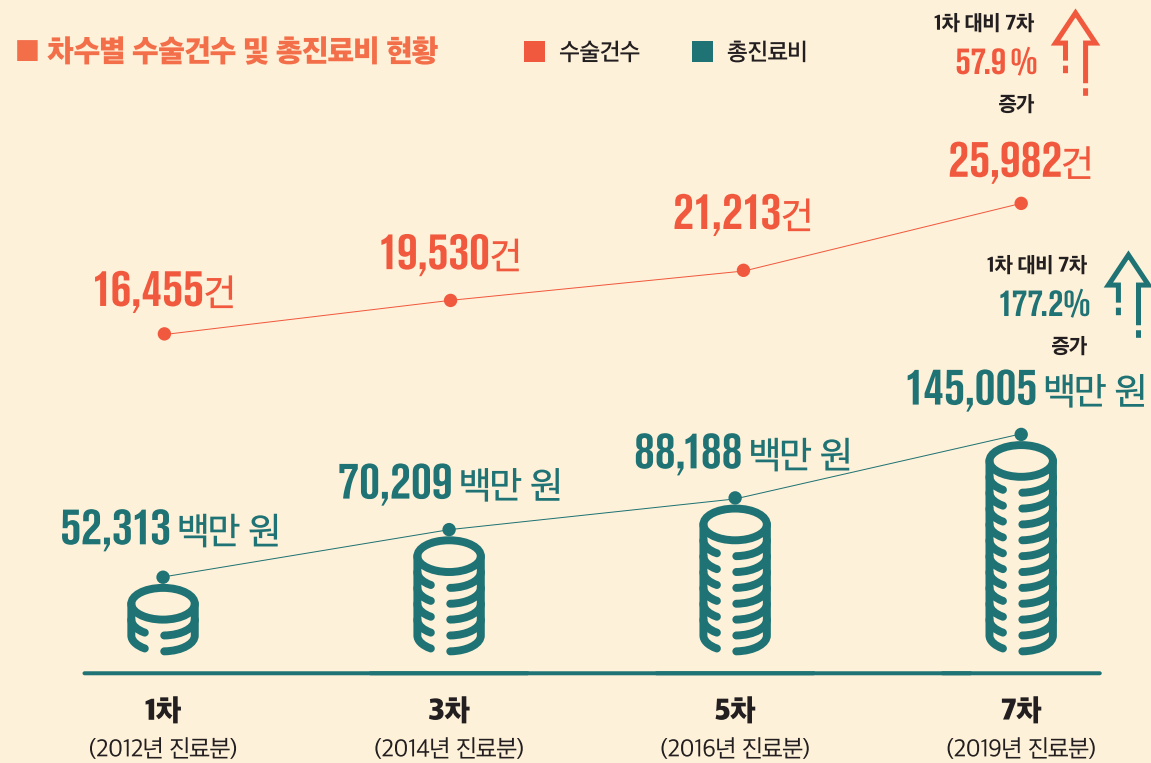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률 1위*인 유방암은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질환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자 2013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2020년 12월 발표)

평가기준

- 대상기관** 유방암 수술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 대상환자** 원발성* 유방암으로 수술한 만 18세 이상 여성 환자
* 다른 근원이나 원인에서 유도되지 않고 일차성으로 발생한 것
- 대상수술** 분류번호 자-713 유방절제술(나. 악성 Malign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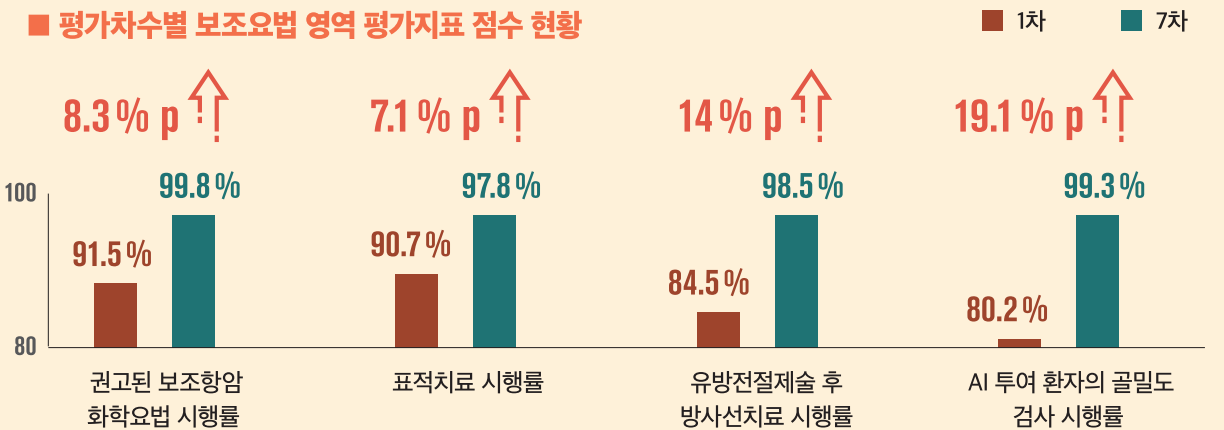
평가차수별 진료규모



• 선별급여 운영, 항암제 보장성 확대 등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급여화 항목의 증가로 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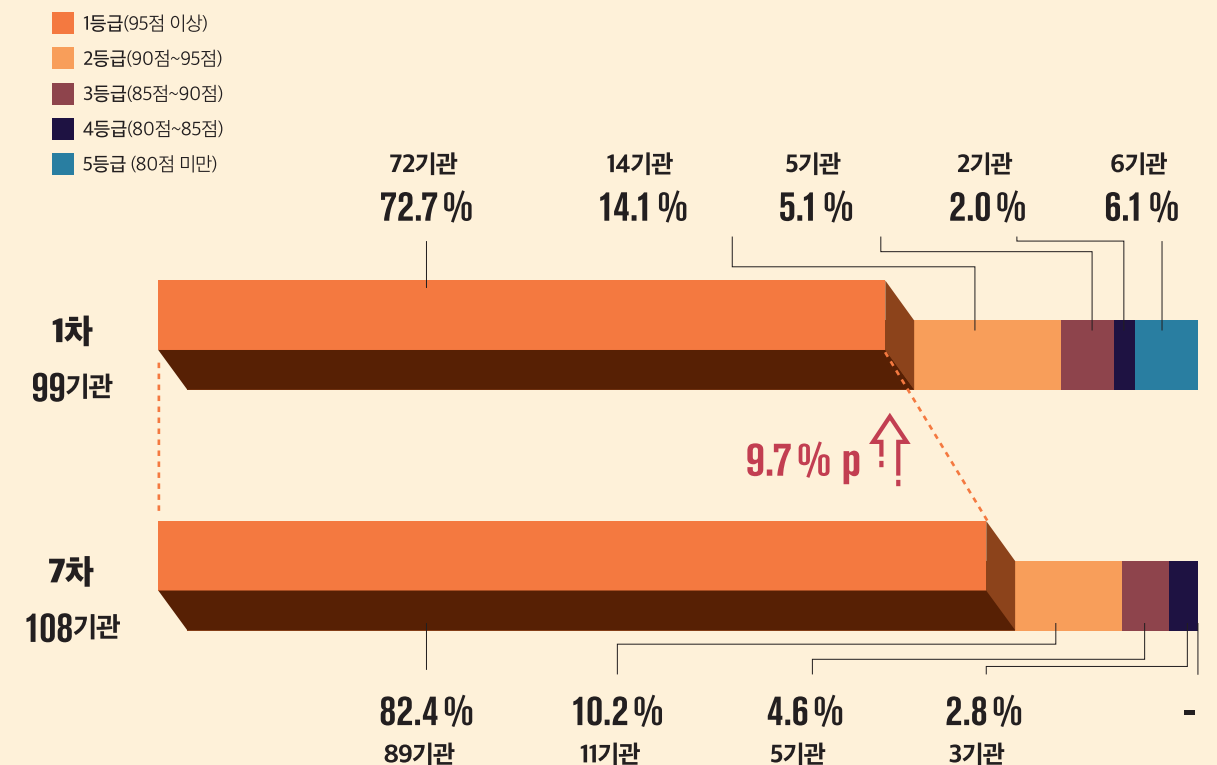
평가결과

- 평가가 거듭될수록 의료 질이 향상되고 우수기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유방절제술 후 재발 및 전이의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절제술의 방법, 호르몬 수용체 및 면역검사 결과 등에 따라 내분비요법, 방사선요법,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와 같은 보조치료를 필요로 함
- 보조요법 영역 지표는 환자에게 제공된 보조치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에게 권고된 요법대로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표적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는지,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시행하고 부작용 관련 검사를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 값이 높을수록 좋은 지표임

■ 차수별 등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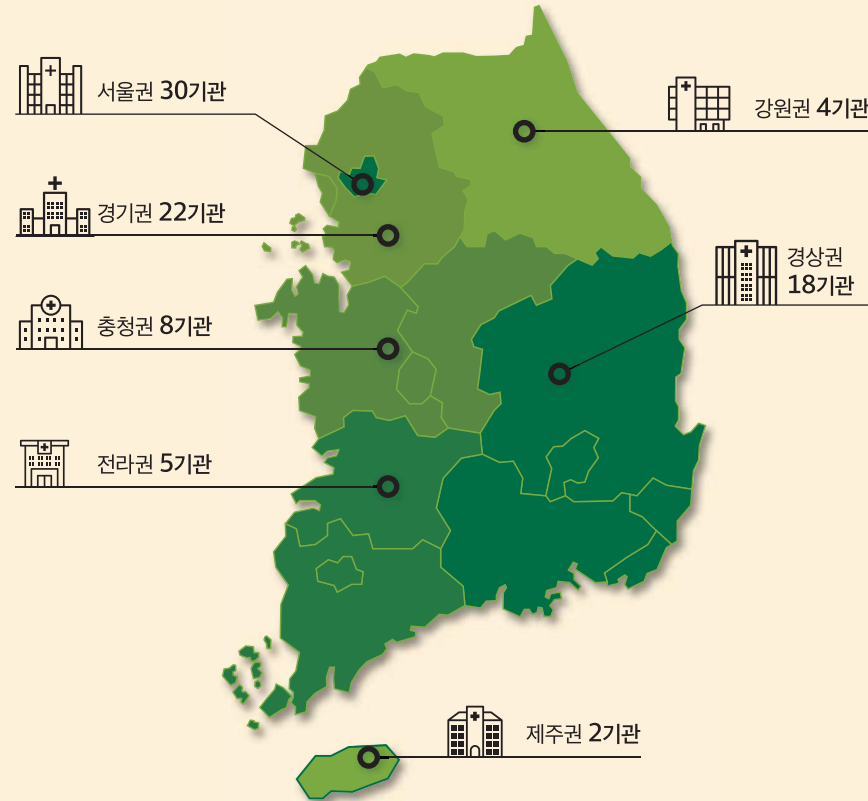
02 위암(1~5차) 적정성 평가 현황 및 종합분석

문의: 평가실 평가3부 신여희 대리(033-739-5519)



■ 권역별 1등급 분포현황(7차 평가 기준)

전체
89기관



- 그 동안 요양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수술치료 중심의 1주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이후부터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개편하여 2주기 암 적정성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배경 및 목적

-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암 사망률 4위이며 특히 35세~64세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질환으로 환자 중심의 효과적인 질(quality)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에 요양기관별 위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위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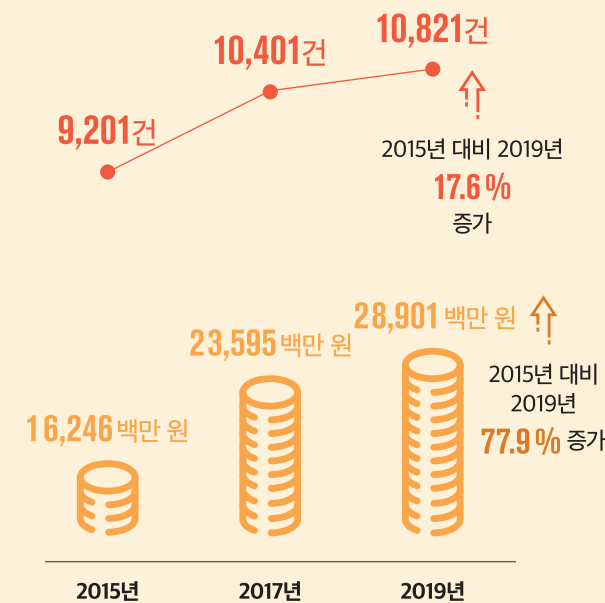
평가기준

- 대상기관** 위암 수술 환자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
- 대상환자** 원발성* 위암(C16)으로 수술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
* 다른 근원이나 원인에서 유도되지 않고 일차성으로 발생한 것
- 대상수술** 「내시경 절제술」 또는 「위절제술」
 - 자765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
 - 자253: 위전절제술
 - 자259: 위아전절제술

내시경 절제술 및 위절제술의 연도별 진료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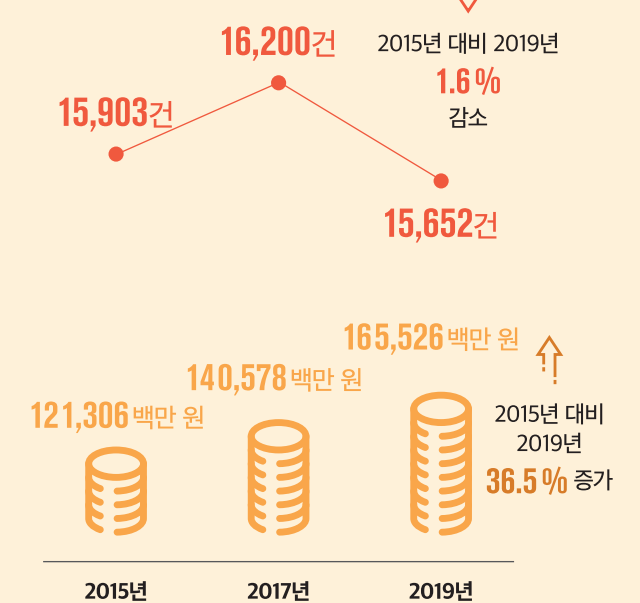
■ 내시경 절제술* 수술건수 및 총진료비 현황

* 내시경을 이용하여 병변을 절제하는 방법



■ 위절제술* 수술건수 및 총진료비 현황

* 복강경 수술 또는 개복 수술



- 내시경 절제술 건수는 증가한 반면 위절제술 건수는 감소하였으며, 선별급여 운영, 항암제 보장성 확대 등 보장성 강화정책 관련 급여화 항목의 증가로 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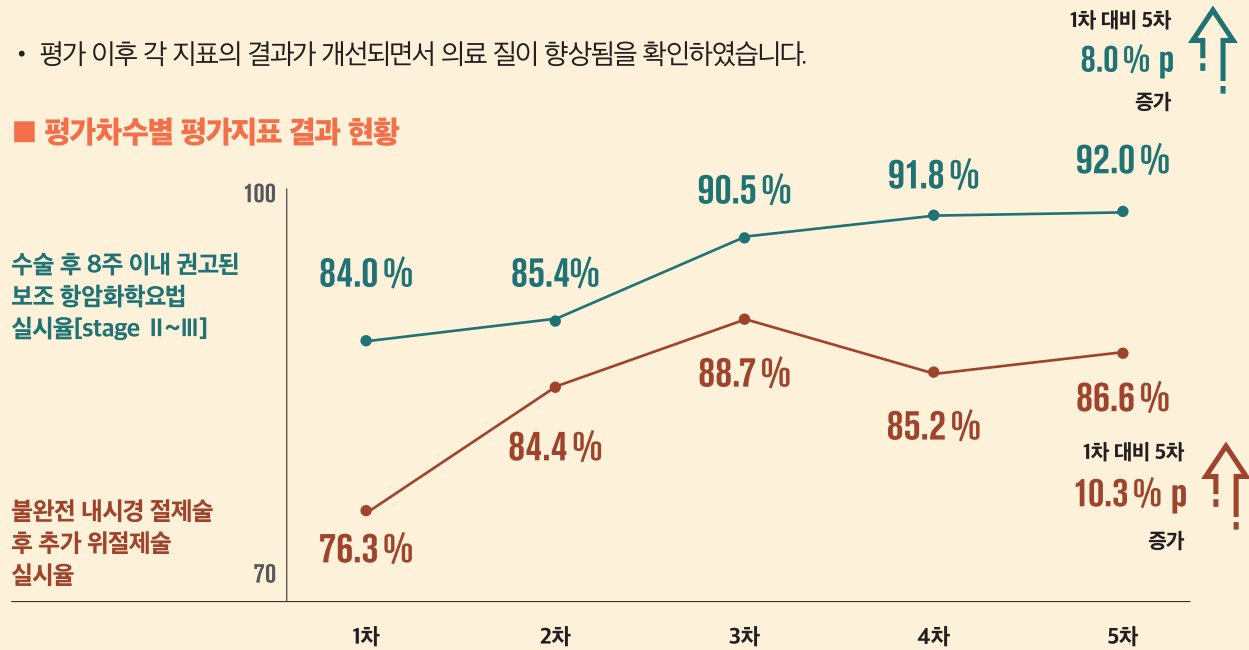
2019년(5차)
위암 적정성 평가
결과보고서
QR코드 바로가기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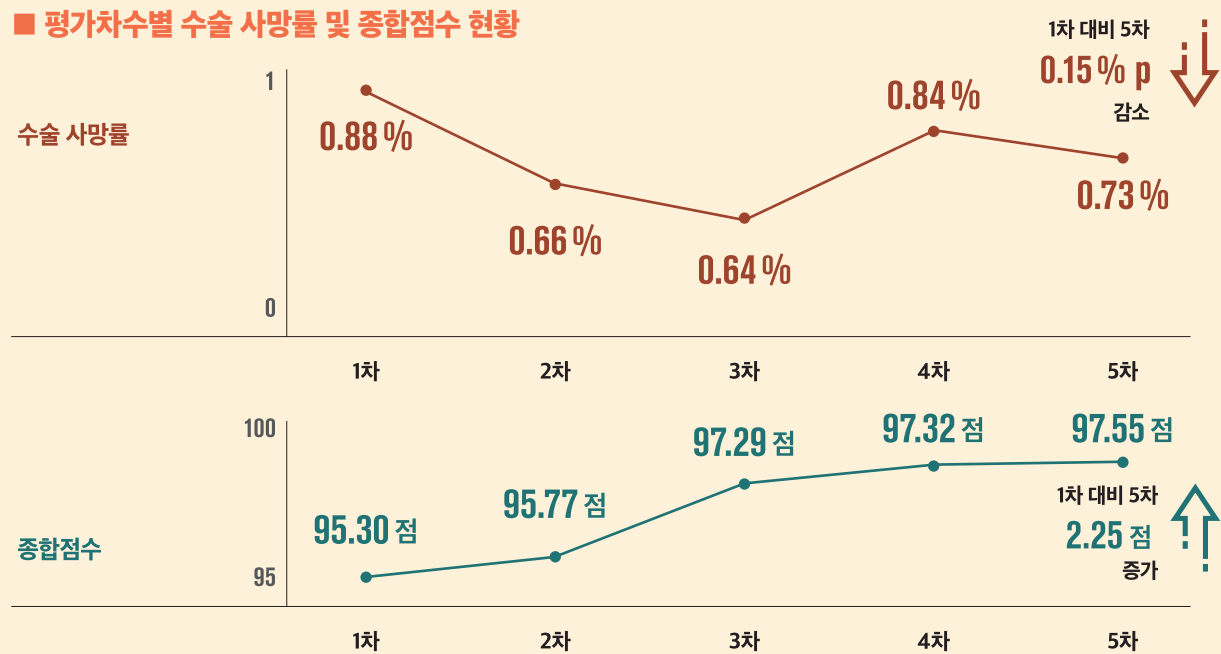
- 평가 이후 각 지표의 결과가 개선되면서 의료 질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평가차수별 평가지표 결과 현황



-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stage II~III]: 보조 항암화학요법은 stage II~III의 위암 환자에서 재발을 낮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수술 후 8주 이내 실시를 권고하고 있어, 결과 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 절제 또는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위절제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 값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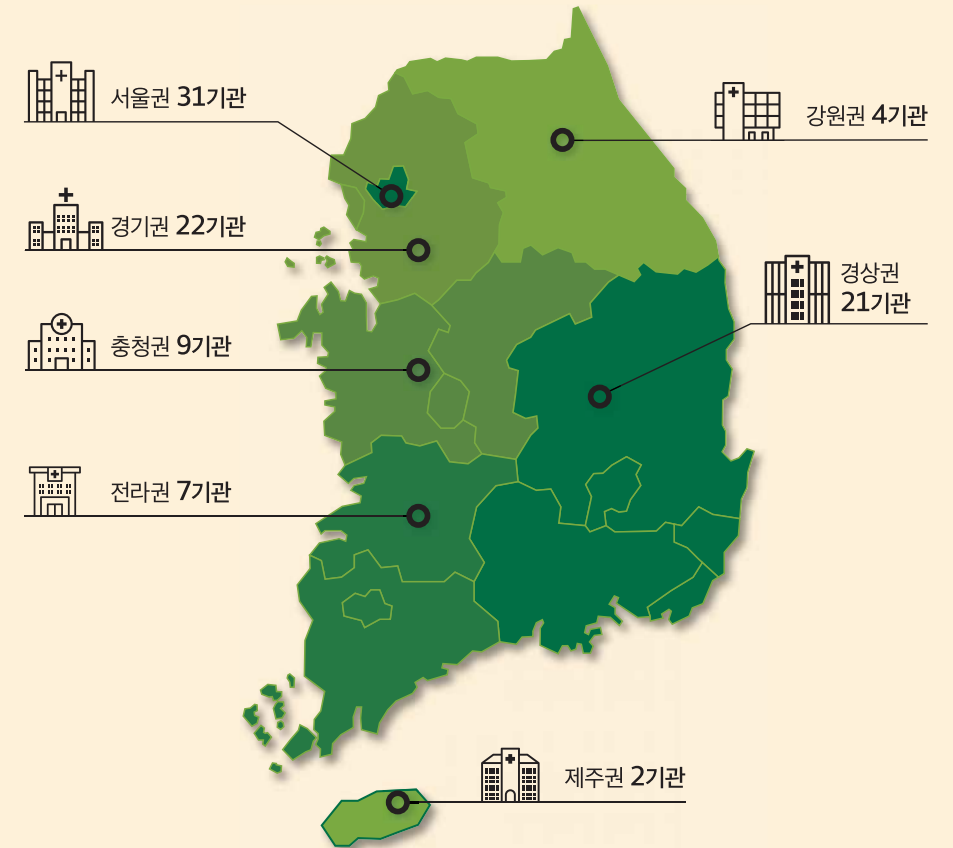
■ 평가차수별 수술 사망률 및 종합점수 현황



- 수술 사망률은 낮을수록, 종합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 권역별 1등급 분포현황(5차 평가 기준)

전체
96기관



- 그 동안 요양기관의 관심과 노력으로 수술치료 중심의 1주기 위암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이후부터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개편하여 2주기 위암 적정성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03 2021년(5차) 폐렴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문의: 평가실 평가4부 윤혜선 팀장(033-739-5533)

배경 및 목적

- 폐렴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노령인구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며,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인환자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 이에, 폐렴 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진단 및 치료 등을 평가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1년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대상

- **평가기간:** 2021년 10월 1일~2022년 3월 31일(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하여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
- **대상환자:**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하여 정맥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만18세 이상 성인 환자

평가기준

- 총 6개 평가지표

구분	지표명
과정 지표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 (병원도착 24시간 이내)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 (혈액배양검사 시행 건 중)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 병원도착 8시간이내 항생제 투여율

평가방법

- **평가자료:** 청구명세서,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등
- **조사방법:** 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e-평가시스템'을 통한 조사표 수집 후 조사자료 신뢰도 및 오류점검을 실시합니다.
-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알기 쉽게 평가등급(1~5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 국민이 의료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23년 7월 결과공개 예정)
- 요양기관별로 평가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2021년(5차)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04 2021년(1차) 치매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문의: 평가실 평가4부 유정희 팀장(033-739-5532)



배경 및 목적

- '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29%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는 질환의 특성상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치매 적정성 평가 수행을 통해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

- **평가기간 :** 2021년 10월~2022년 3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 환자 15명(6개월) 미만 의료기관 제외
- **대상환자:** 신규 치매 외래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신규 치매 외래 환자

평가대상기간동안 동일기관에서 치매 상병(주, 제1부상병)으로 1회 이상 외래 진료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점 이전 1년(365일) 이내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상병코드)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00~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치매치료제)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 (제외기준)

- 대상기간 중 치매 상병으로 입원 이력(한방 포함)이 있는 환자
-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명세서가 축적진료인 건

05 2022년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안내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분석부
김귀옥 과장(033-739-3551)



평가지표

■ 총 9개 지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구분		지표명
평가 지표	구조 (1)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과정 (3)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필수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모니터링 지표	과정 (5)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치매 진단 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 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국가단위 산출)

※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에서 제외

※ 2021년(1차) 치매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e-평가시스템(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공모 주제

■ 영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및 국민건강에 기여 가능한 주제

- 자유 연구주제 (적정성 평가항목)

간암진료결과, 고혈압, 급성기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당뇨병, 대장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유소아급성중이염항생제), 요양병원, 유방암, 위암, 의료급여 정신과, 중환자실, 천식, 폐렴, 폐암, 혈액투석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주제는 대상 수술별로 신청 가능

- 지정 연구주제

- (고혈압) 고혈압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 (당뇨병) 당뇨병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시행건수와 사망률의 상관관계 분석
- (급성기뇌졸중)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현황과 사망률 연관성 분석
- (급성기뇌졸중)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심방세동군과 비심방세동군에서 t-PA 투여시간과 사망률의 연관성 분석

참여방법

- 참여대상: 공모 연구주제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자
- 공모기간: 2021년 8월 30일(월) ~ 9월 27일(월)
- 제출서류: 연구과제 공모신청서, 수행개요서 및 계획서, 5년 이내 연구논문 발표 실적 각 1부
※ 연구기간: 2022년 1월~2022년 12월(1년)
-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담당자 이메일(turtle52@hira.or.kr)로 제출

연구과제 선정

- 선정방법: 4개 부문, 8개 항목 종합점수 기준으로 선정
- 결과발표: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 및 개별 통보(10월 중)

지원사항

- 보건 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원격분석시스템) 이용수수료 면제

※ 연구과제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06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내

건강보험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란?

-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여 보험적용 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급여 지속 적용 여부 및 급여 적용 수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어떤 의약품을 평가하나요?

- 주요 선진국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약품,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과도한 의약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약품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평가내용과 절차를 거쳐 평가하나요?

- 각 평가대상 의약품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국내외 주요 교과서, 연구 자료 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자 및 의약단체와 제약사 의견 등을 들어 평가합니다.
- 이 밖에도 **비용 대비 가치**와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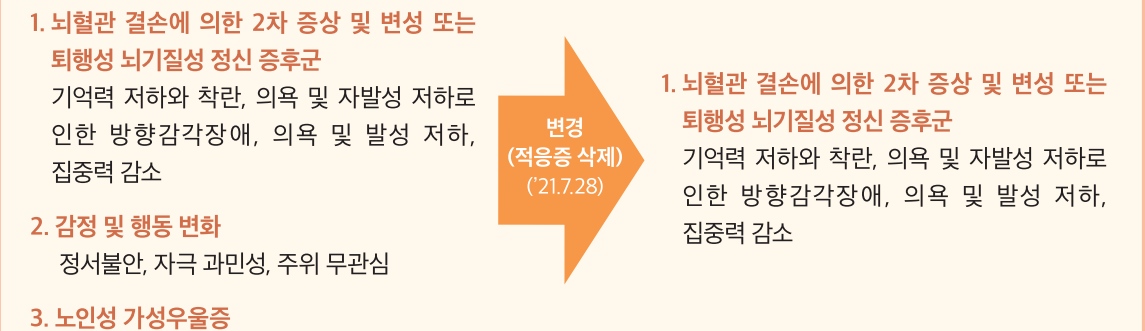
향후 계획

- 건강보험 의약품의 급여 적용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내외 보험 적용 및 청구 실적 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평가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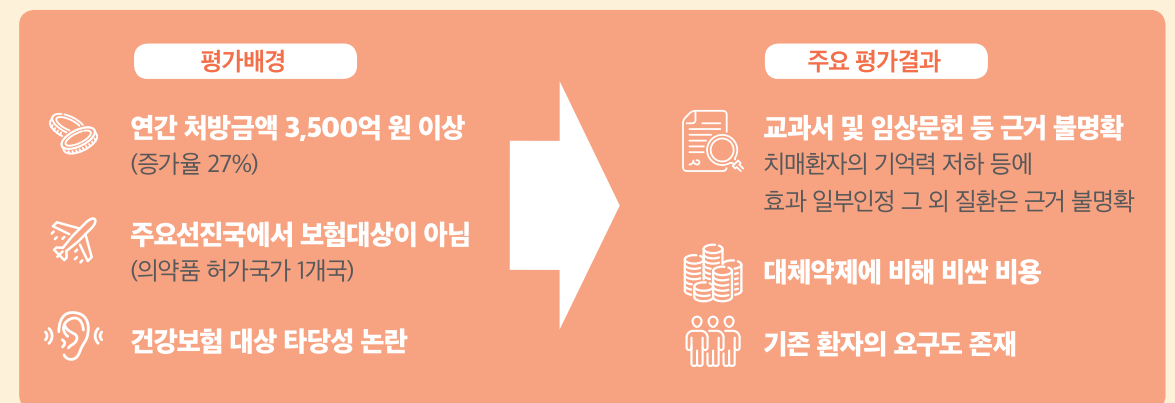


뇌기능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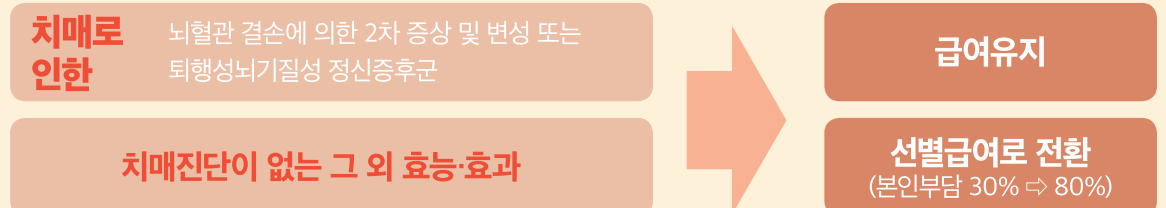
- 약제 정보:** 뇌기능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여러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평가 결과:** 치매환자의 기억력 저하 등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인정되지만, 그 외 질환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복용 환자의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도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률 조정:** 위의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치매 환자에는 기존 급여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그 외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80%로 늘어나게 됩니다.



07 7개 질병군 영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

배경

-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서식은 포괄수가제도 도입 초기 서식으로 관리·운영 중입니다.
- 짚은 진료비 계산 착오, 비효율적 자료 제출 및 정보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구명세서 서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 시행일: 2021.10.1.
- 대상: 7개 질병군 영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구분	개편 전 (~'21.9.30.)	개편 후 ('21.10.1.~)
청구매체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정보통신망
청구 프로그램	상용패키지, 외주개발, 자체개발, 심사평가원 제공(HIRA-DRG)	상용패키지, 외주개발, 자체개발
명세서 내역구분	①일반내역 ②진단내역 ③진료내역 ④특정내역 ⑤질병군 영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①일반내역 ②진단내역 ③진료내역 ④처방내역 ⑤특정내역 기재란 ⑥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금액 구분 항목 신설	-	포괄수가, 질병군 영양급여비용 총액
끝수계산	포괄수가 미절사	포괄수가 10원 미만 4사5입
기재 방법	별도산정내역	특정내역(MT007)에 기재
	특정내역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청구 후 해당 환자의 행위별 진료비 관련 자료제출

제도문의: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89)
시스템문의: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033-739-1209, 1211)



청구명세서 서식 개편 관련 FAQ



개편되는 청구명세서 서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진료년월 관계없이 2021년 10월 1일 청구분부터 개편된 '092' 서식만 적용됩니다.
단, 신설된 포괄수가 규정(10원 미만 4사5입)은 2021년 10월 1일 요양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청구일	요양개시일	포괄수가/포괄수가의 본인일부부담금	서식
2021.10.11.	2021.9.30.	10원 미만 미절사	092
2021.10.11.	2021.10.1.	10원 미만 4사5입	092



개편되는 '092'서식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A. '092'버전으로 서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092' 서식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 청구 가능합니다.



입·퇴원 당일 외래진료 시 외래진료비와 원외처방전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A. 질병군 일반원칙에 따라 입·퇴원 당일 외래진료는 질병군 입원진료에 포함되며 이때 발생한 원외처방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와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질병군 분류내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A. 질병군 번호를 결정하는 진료내역으로, 각 항목별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1~56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개편 전 (~'21.9.30.)	개편 후 ('21.10.1.~)
주사 및 혈액제제	명세서 진료내역 04항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1목
마취 및 호흡치료	명세서 진료내역 05항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2목
수술처리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3목
검사	명세서 진료내역 09항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4목
방사선	명세서 진료내역 10항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5목
부가코드	명세서 일반내역 질병군 부가코드	명세서 진료내역 L항 56목

08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안내

문의: 자원평가실 호흡기전담클리닉운영지원부 조연우 팀장(033-739-5880)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발열 환자(독감 등) 증가에 대비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 * 코로나19 환자 방문 시 의료진 및 타 환자에 대한 감염 전파 차단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 진료대상:** 감기 및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등 발열 또는 호흡기 환자
- 지정유형:** 1) 요건을 갖춘 병·의원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 2)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설치하고 민간 의사 등이 순번제로 진료하는 '개방형 클리닉'
- 역할·기능:** 감염예방수칙 준수 하에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또는 선별진료소 의뢰)
- ※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약 시 전화 상담을 통해 대면진료 필요성 판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요건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보건소, 의원, 병원, 국민안심병원인 종합병원
- 시설기준:** '비말'주의 적용하며, 동선 분리 및 환기 가능 여부 등을 고려
 - 접수, 대기, 진료, 보호구 착·탈의, (선택)방사선 촬영, (선택)검체 채취 등 구역별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 예) 칸막이, 손소독제, 환경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음압부스 등
- 인력기준:** 의사 1명,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명, 진료보조·행정·소독 담당 인력 1명
- 운영기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협의 하에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조정 (운영 외 시간에 일반 환자 진료 가능)
 - 동선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내역

- 재정지원:**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원* 지원
 - * 지역 내 신청 개소 수, 개소별 집행소요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될 수 있음
 -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 지출 가능
 - 예) 건물임차료(월납입금), 관리비, 소모성 물품,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단, 인건비성 지출 불가)
 - 개인 보호구 별도 지원
- 진료수가:**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약 21,000원) 산정*하되 본인부담금 면제되므로, 환자부담은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
 - * 예산 부족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시 수가 산정 가능
 - 개방형 클리닉은 보건소 수가로 산정하며, 민간 의사에게 별도의 진료수당 지급(8시간 기준 50만 원)
- 지역홍보:** 호흡기·발열 증상 시 안전한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의료기관으로 대국민 안내
 -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 노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방법과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이용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홍보자료 > 카드뉴스

09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 안내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3, 2746),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033-739-1607, 1618)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란?

- 거동이 불편하여 내원 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한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한의 방문진료 개념도



누가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범기관으로 승인한 한의원의 방문진료 한의사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시범기관의 재진 환자 중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재진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환자도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진찰, 급여 한약제제 처방, 침술·구술·부항술 등을 통한 주증 및 동반질환 관리, 한방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한의 방문진료료는 93,210원이며, 환자는 30%를 본인 부담합니다
 - ※ 의료서비스 총 비용의 30%를 본인부담합니다(건강보험기준)

시범기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시범기관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 "분야별" 탭에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선택 > [검색] 클릭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8월 30일부터 3년간이며, 시범사업 실적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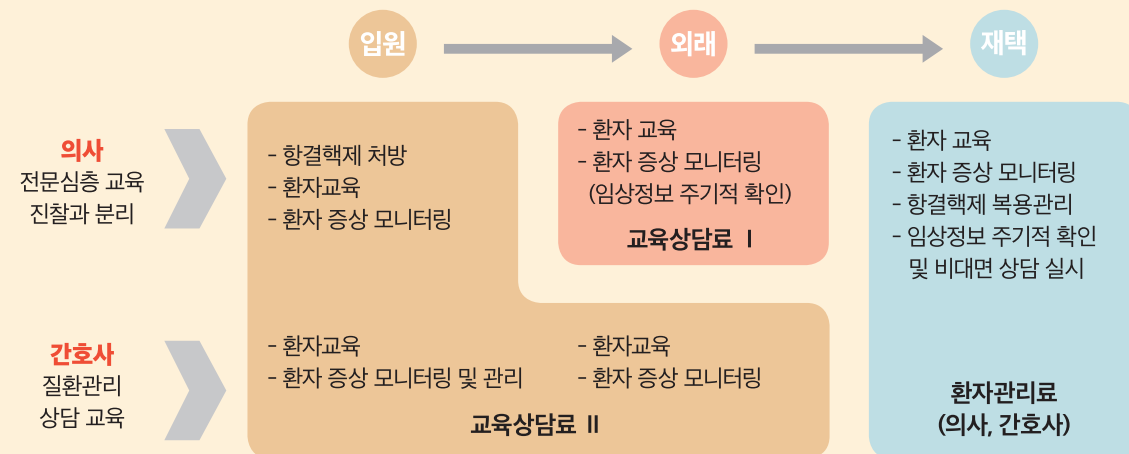
10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1, 2735),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033-739-1611, 1619)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 결핵질환자로서 산정특례(특정기호 V000) 적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상담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핵 완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업 개념도



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 및 등록 완료된 기관이 제공합니다.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누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결핵 초치료(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특정기호 V000) 적용 중이며,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하여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 의사(전문의)와 간호사의 결핵질환과 관련된 교육상담, 가정에서의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의 인력 구성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결핵환자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자로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호사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간호사 교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한결핵협회(중앙교육원, 1544-5035)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대상 교육에 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에서 사업 지침 및 교육 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요양병원 준비운동

지킬수록 가까워집니다.
사랑한다면 꼭 지켜주세요



하나. 별도의 면회공간 설치



둘. 면회객 명부 관리



셋. 예방접종 완료 직원 배치



넷. 면회공간 방역과 환기

이 지 애

광고 모델 이 지 애

‘실종 아동 및 장애인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현재 추정 모습

실종자 정보



이름	신관식	성별	남자
실종일시	2009.06.18.	실종당시나이	만 37세 (현, 만 49세)
지역	광주 동구		
신체특징	장애, 키 178cm, 체중 75kg, 입술이 약간 돌출, 치아가 고르지 않음, 엄지발가락 흉터, 가름한 얼굴형		
착의사항	긴팔 와이셔츠, 농구화 착용		



이름	정창근	성별	남자
실종일시	2005.12.27.	실종당시나이	만 40세 (현, 만 56세)
지역	인천 남구		
신체특징	장애, 키 170cm, 체중 75kg, 우측 다리를 절음		
착의사항	미색 점퍼, 남색 긴 바지 착용		



이름	모영광	성별	남자
실종일시	2003.10.10.	실종당시나이	만 2세 (현, 만 20세)
지역	부산 해운대구		
신체특징	눈썹 짙고 일자형, 머리숱 많음		
착의사항	회색 츄리닝 상하의, 운동화 착용		



이름	김유섭	성별	남자
실종일시	2003.02.06.	실종당시나이	만 7세 (현, 만 26세)
지역	서울 동대문구		
신체특징	키 120cm, 눈썹이 진하고 선명함		
착의사항	검은색 점퍼, 회색 바지 착용		

정보제공 :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제보처 : 경찰청 112

